취업시리즈 〈1〉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들

"자포자기와 무관심이 더 문제다"

졸업생들에게 지금은 취업문제로 분주할 때다. 이에 따라 우리신문은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좀더 넓은 시각을 갖는데 도움의 장이 되고자 5회에 걸쳐 본 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

사원 선발 기준의 변화

"이미 우리는 학력이나 학점을 신입사원 채용기준으로 삼고 있지않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당장의 능력보다는 올바른 가치관과 가능성을 현실로 창출할 줄 아는 인재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견 기업체에서 신입사원 선발을 맡고 있는 인사담당자의 말이다.

동문선배이기도 한 그는 최근 각 기업체의 채용패턴이 '학력 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한다.

"우수한 인재라고 선발해서 해외연수까지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관계에 있는 타 업체로 자리를 옮기던군요"라며 그는 자신의경험담을 털어 놓는다.

자기소개서 세밀히 검토

잘 알려진 사실대로, 최근들어 추천을 통한 특채와 일사지원서의 한 항목인 '자기소개서'가 취업의 관문을 뚫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취업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아직도 '취업전쟁'에서의 승패가 '어느 학교에서 어떤 학점을 받았느냐?'라는 것에서 결정된다고 여기는 실정이다.

"담당 부서의 직원 5명이 3일 낮, 밤에 걸쳐 2,000여장에 달하는 자기소개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수의 지원자들이 형식에만 치중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점문제는 일정 수준(평점 3.0)이상이라면 그다지 주요감안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라는 그의 당부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채용에서의 학점비중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대학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하향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 내에서의 연수제도 및 어학과정 개설등을 통한 사원 재교육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많은 지원자들에게 개인의 실력발휘를 할 필기시험의 기회를 박탈하는 형식적 절차로 여겼던 서류전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비가 요구된다는 것이 취업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넘치는 취업정보, 이용률은 저조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취업정보실을 통해 우리 학교에 접수된 취업의뢰는 총 2,409건이다. 그러나 이를 능동적으로 이용한 학생들의 숫자는 의외로 적다.

수원캠퍼스 취업정보실의 최상익 주임은 다음과 같이 이용실태를 밝힌다. "11월현재까지 이곳에서 취업상담을 했던 학생수는 180여명에 불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막상 시기가 닥치면 그동안 자신이 준비하지 못한 취업대책에 대한 강박관념만이 작용한 나머지 충분히 가능했던 기회 마저 놓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학력에서 인성중심으로 패턴변화
형식적 서류전형 작성은 금물

또한 교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기업 설명회와 취업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취업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학생들의 자세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캠퍼스에 개설된 경영, 경제, PC 특강 중 '경영학원론'은 수강인원 미달로 폐지된바 있고 다른 두과목은 각각 40명정도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원에 개설된 '취업대비-한문특강'의 경우, 신청자 36명에 불과 합니다. "11월현재까지 이곳에서 취업상담을 했던 학생수는 180여명에 불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막상 시기가 닥치면 그동안 자신이 준비하지 못한 취업대책에 대한 강박관념만이 작용한 나머지 충분히 가능했던 기회 마저 놓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기업 설명회와 취업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취업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학생들의 자세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캠퍼스에 개설된 경영, 경제, PC 특강 중 '경영학원론'은 수강인원 미달로 폐지된바 있고 다른 두과목은 각각 40명정도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원에 개설된 '취업대비-한문특강'의 경우, 신청자 36명에 불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관계자에 따르면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일 경우 참가자가 많을 때라고 해야 2백명선, 심지어 모 기업의 '면접특강'에는 5명만이 참석해 주최측을 당혹케 한 적도 있다.

동문과의 연계, 개선책 시급

지난 4월 29일, 취업 정보실 주최로 열린 동문 설업인과의 간담회는 사회에 진출한 동문들의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로 평가 받고 있다. 한 동문은 (S 은행 상무) "후배들의 취업에 적극 나섰더니 그 후배가 나중에 큰 도움을 주었던 만큼 경희인은 탄탄한 단결력을 가져야 한다"라며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단계로 올라서지 못한 취업분야에서의 동문역할을 역설적으로 꼬집었다.

실제로 사회 구석구석에 중견인으로서 포진한 경희의 동문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본교 주최 기업 설명회에 반드시 10명씩 참가하는 성의를 잊지 않고 있으며, 추천서 내지 공책서류를 들고 방문하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 동문들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

모든 동문들이 좀더 다수의 후배들에게 동문들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호간 연계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기업체에 재직 중인 동문들의 현황등과 같은, 기본적이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항들에 관한 정지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두드리는 자'의 몫

자격지심에 이은 자포자기와 무관심이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최근 일고 있는 채용패턴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취업이라는 현실의 높은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취업 정보실, 조두행 차장은 "취업이 목전에 닥쳐왔다고 절대 당황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취업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의 하십시오.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여 그간 차분히 준비하는 등, 스스로 노력을 한 이에게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라며 급할 때일 수록 서두르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상호 기자〉

"간접낙태 외에는 허용될 수 없다"

'낙태반대침묵시위'현장에서

지난달 26일 여의도 광장에서 26개 천주교 및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낙태반대 운동연합회'(낙반연)는 낙태허용범위를 인정하는 개정형법 제135조에 대한 침묵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날 참석한 5백여명의 회원들은 어깨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며 손에는 8주된 태아의 실물크기의 모습과 찢겨진 태아의 상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유인물을 들고 있었다.

낙반연 공동 실무책임자 한철호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사회정의 실현의지보다는 사회문제로 야기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한 정부당국 및 실무책임자에 대해 참석자들의 강도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개정된 형법 제135조 낙태의 허용범위는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거나 염려될 경우 ▲태아의 유전적 소질 또는 출생 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 ▲강간 및 준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등이며, 24주내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낙반연은 "법은 다수가 찬성한다고 다 무조건 올바른 법이 아니며 법의 원천인 신정법과 자연법의 한계 안에서만 올바른 법이다. 따라서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려다 발생하는 간접 낙태 이외에는 어떠한 낙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형법 칠폐를 촉구하는 최창무 주교의 공동선언문 낭독모습.

날로 심화되어 가는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무고하게 죽어가는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개인이 아닌 사회전체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날 최창무(서울 대교구 보좌주교)씨는 "낙태에 대한 기소와 유죄판결은 사회관행으로 거의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현행 개정형법 제135조는 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간 1백50만명이상의 태아가 죽어감으로써 인구대비 낙태율이 세계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 현실에서 본다면 정부는 이제까지 인구조절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방조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이들회원들은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인간의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라고 쓴 피켓을 들고 국회로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한승오 기자〉

검단시론

김성태 〈법대교수·법학〉

검찰의 역사의식

반란수괴, 불법진압, 지휘관계업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어디 그뿐인가? 반란모의참여 및 중요임무종사… 소위 5·6공시절의 두 대통령을 포함하여 권력을 휘두른 군부세력이 1979년 12월 12일 저지른 주요 죄목이다. 실로 목이 열개라도 모자랄 엄청난 죄상이다. 박정희의 피살로 유신체제가 붕괴한 공백기에 저질러진 권력에 눈이 먼 소수 정치군인의 극악무도한 하극상 행위를, 검찰이 반년간의 수사끝에 최근 밝혀낸 점은 매우 높이 살 만하다. 이들이 저지른 죄과를 놓고 국민은 다시 한번 우리의 현대정치사가 우리국민과 역사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케 된다.

드러나는 진실

혼히 정치를 가리켜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한다. 국민의 마음을 재대로 읽고 편안하게 해 주는 기술,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리라.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국민을 극진히 섬기는 권력자나, 나라를 위한 시대적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는 구경도 못해보고, 그들의 저질성과 위법·부도덕성에 시달리며 이미 한 세대를 허송해버렸다. 국민은 정치에 맛들인 극소수의 빗나간 권력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소위 신군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로선 하나의 치욕이요 저항이다.

신군부가 연출한 암흑시대

이렇게 무도한 권력찬탈의 발판을 굳힌 이들은 그로부터 반년 후에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선량한 국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 피를 뒤집어쓰고 소위 5공정권을 장악하지 않았던가? 이들 사조직을 축으로 하는 정치장교는 헌정질서를 처참히 짓밟았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81년 4월 당시 대법원장은 타의로 그 직을 떠나면서 역대 대법관 중 최장수(약20년)를 누린 자신의 삶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졌다고 눈물을 쏟았다. 그가 퇴임사에서 司法府를 여섯번이나 司法'部'로 적은 것은 당시의 참담한 사정을 말해준다. 곧이어 광주학살로 정치야욕의 본색을 드러낸 신군부세력에게는 이미 유신으로 주눅이 들대로 들어 있던 사법부조차 눈에 가시였다. 김재규사건 심리가 늦어지자 전두환은 대법원장 공관을 찾아가 압력을 넣었고, 일부 '개혁' 추진장교는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 버리자"고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80년 5월 김재규사건 상고심에서 군법회의 관결과 달리, 김재규의 내란죄 불성립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원판사 5명 전원이 법복을 벗어야 했고, 심지어 수사기관을 끌려가 조사를 받은 수모를 당하였다. 이 판결전문은 1990년에 이르도록 공개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은 정의와 역사를 10년간이나 군화로 짓밟고 있었던 것이다.

되돌아보면 12·12의 군권탈취는 결국 무력으로 정권을 뒤집어 엎는 드라마의 전주곡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양자는 따로 떼어 논하기 어려운 반역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점은 굳이 외면한 채, 이들에게 군형법만을 적용하여, 군사반란죄만을 인정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범해석이다. 이는 마치 흉기를 소지하고 한밤중에 떼를 지어 남의 집 담을 부수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한 행위에 대하여, 담을 부순 점만 문제삼아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검찰이 이들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죄의자들이 지난 15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다"는 이유로 이 권력찬탈극을 불문에 붙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다시 검찰에 묻는다. '나름대로'의 공이란게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화를 주장하는 양심세력을 탄압하고,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은 작태는 검찰 스스로도 공으로 인정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온갖 부정과 실정으로 나라를 병들게 하고, 국민에게 끝없는 좌절감을 심어준 공인가? 그들의 대통령 재임 중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은 대통령직이 엄청난 이권이요, 청와대는 가장 악명높은 '이권부서'라는 점이었다. 작년 9월에는 어떤 기업인이 자신이 경영하던 재벌그룹 강제해체가 집단강도행위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등의 범죄단체구성에 의한 강도, 업무상배임,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나라의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꼴을 당하는가? 나라 망신시키는 공도 공인가? 그도 아니면, 자기 손으로 머리맡 벌을 마구 붙이고, 가슴엔 건국훈장을 단 공인가? 그들의 그 알량한 '공'때문에 우리 사회는 오늘도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지를 않은가? 냉정히 돌아보건대, 역사상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이처럼 천박하고 야비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한 적은 일찌기 없었다. '성공하면 충신,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속설은 역사적인 반역행위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세인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한데 불과하며, 이를 검찰의 좌우명으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역사앞에선 검찰

검찰은 발표문에서 이들 범법자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은 범법행위였음을 명백히 인정한 이상 불행하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불법적 실력행사를 경고하는 냉엄한 역사적 교훈을 남겨 역사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권력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권한을 현저히 넘어선 주제넘은 판단이다. 검찰은 자비를 베푸는 기관이 아니다. 그들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면서, 범원에 대하여 범령을 정당하게 적용할 것을 청구할 의무가 있고, 그것으로 족하다(검찰청법 제4조). 그러기에 검찰의 생명은 국민의 법감정에 터잡은 정의감 바로 그것이다. 반민주·반역사적 범죄 응징을 오늘 해내지 못한다면, 내일 그것은 다시 고개를 든다.

거듭 확인하거니와 검찰은 역사를 쓰지 않는다. 그들이 역사의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나, 역사의 물길을 조절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들이 "후세의 사가에 맡기자"고 하지 않더라도 역사는 냉엄히 기록할 것이다. 역사적 심판의 대상에는 '자신의 해임을 역사로 비루는 검찰의 굴종적 태도'도 당연히 포함됨을 명심하라.

40 한독약품 창립 40주년 1954-1994

한독가족의 만족은 고객만족의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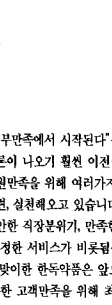
기업이념반전을 위한 신임레방에 도전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있습니다 (중앙연구소 주임 강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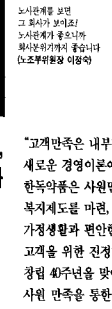
최첨단 KGMP설비의 운영선공장에서 보다 좋은 의약품을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생산부 주임 김수한)

기업마크관리의 효자-한독의약품은 전통과 신뢰를 소중히 하는 회사에 자긍심을 갖게됩니다 (한울관장 김복진)

사업다각화와 신비람경영혁신으로 보다 비전있는 회사 보다 합리적인 회사로 발전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독약품은 고객여러분께 치료도 높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사장 김조원)

한독인이면 누구나 좋은 회사 만들기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사내제안제도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기획조정실 이민록)





현지출퇴근하니까 시간은 절약되고, 고객서비스도 좋아지고 여러분 일석이조 아닙니까? (영업본부 주임 이현무)

전통있는 기업이라는 정도만 알고 입사했는데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에서 창업 감에 듭니다 (시약사업본부 고점림)

회사 뒤편에 대학까지 고용해 걱정은 없어요. 학교 다니는 애가 생인데 학비 걱정없이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공무부 박제희 대리 부인 김정애)

조기출퇴근·주5일근무제로 자기개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많아져서 정말 좋습니다 (총무부 장희진)

노사관계를 보면 그 회사가 보이죠! 노사관계가 좋으니까 회사분위기까지 좋습니다 (노조부위원장 이정각)

창립40주년을 맞이한 한독약품은 앞으로도 사원을 소중히,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만족은 내부만족에서 시작된다"는 새로운 경영이론이 나오기 훨씬 이전- 한독약품은 사원만족을 위해 여러가지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제도를 마련,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된 가정생활과 편안한 직장분위기, 만족한 회사생활에서 고객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가 비롯됨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한독약품은 앞으로도 사원 만족을 통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독약품 한독건강 한국룻셀

한독약품 지회사